

민 정 실	음 진 천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세인트루이스 노인회 노인잔치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노력 하여야 할 사람
 바로 너이니,
 지난날 부처님은
 단지 길을 보여 주었을 뿐.
 이 길을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
 악의 신 마라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네.

It is you who much make the effort. The Great of the past only show the way. Those who think and follow the path become free from the bondage of MARA.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우란분절과 천도

불가(佛家)에서는 매년 음력 칠월 보름 백중절을 우란분제라고 하여 목련존자의 효심을 기리고 선망부모와 조상의 천도를 불보살님 전에 기원해 왔다.

우란분제의 유래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존자가 생전의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갇은 고통을 받고 있던 어머니 청제부인을 지극한 효성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힘입어 악도에서 구출하여 천상세계에 환생토록 한 눈물겨운 고사에서 비롯된 불교행사이다.

이처럼 삼악도의 중생을 삼선도로 이끌어내는 것을 천도(薦度)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일년 삼백육십오일 가운데 특히 음력 7월 보름에 우란분제를 지내면 그 공덕이 가장 크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이 날을 기해 천도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중생의 삶은 단 1기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단지 윤회환생할 뿐이다. 이는 마치 누에가 번데기로 변했다가 다시 나방이 되는 것과 같이 삶의 겉모습만 변할 뿐 그 생명자체는 생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생사는 단지 인연집합체인 육신의 생성과 소멸일 뿐 그 육체의 주인공인 영혼 자체는 영생불멸, 불생불멸이며, 중생(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의 모습을 바꾸어 거듭 태어나는 현상을 환생이라 하고 이처럼 환생하는 삶의 모습을 윤회라고 하는데 중생이 윤회하는 무대는 모두 여섯 가지의 갈래가 있고, 이를 육도(六道)라고 한다.

육도는 천상·인간·아수라·아귀·축생·지옥을 말한다. 이 가운데 천상 인간 아수라는 생전의 업이 선(善) 유정(有情)이 윤회하는 곳이므로 삼선도(三善道)라 하고 아귀 축생 지옥은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유정이 윤회하는 곳이므로 삼악도(三惡道)라고 한다.

천도(薦度)는 생전의 업력에 의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생명을 보다 안락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의식이다. 이는 비록 중생의 삶이 자업자득이어서 스스로의 업력에 의해 현재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불보살의 위신력과 불보살이 세운 중생구제의 대비심에 의존함으로써 가능한 일인 것이다.

마치 자신의 실수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라도 지나가는 어른들이 이를 가엾게 여기고 물 속에 뛰어들어 구해 주는 이치와 같으며, 탈선한 자녀를 부모가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과도 같다 하겠다.

한 집안에 탈선한 자녀가 있을 때, 또는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권속이 있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은 모두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리로 선망부모나 일가친척 누대 조상 가운데 삼악도에 몸을 받아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피붙이가 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고통받는 망령은 항상 이승의 친척이 구원의 손길로 천도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조상이나 친척을 둔 사람은 악몽을 꾸거나 하는 일에 지장을 받는 등 음양으로 그 영향을 입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악도에서 구해내서 좀더 나은 세상에 환생토록 천도의식을 베풀면 죽은 망자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공덕이 되는 것이다.

<지장경> 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죄만을 지었더라도 목숨을 마친 후에 대소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주면 그 모든 공덕의 칠분의 일은 망인에게 가고 나머지 칠분의 육은 살아있는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미래나 현재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잘 닦으면 그 모든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아메리칸 부디즘 바람 거세”

서양으로 오신 부처님: 일본禪 티베트 남방불교 유행, 한국불교의 설 자리 좁아 유감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임을 표방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복음주의 감리교 근본주의자이다. 교파를 막론한 교회의 숫자만 보아도 기독교 국가임을 분명하다. 그러나 작고도 고요하게 퍼져 나가는 부처님의 목소리는 미국 땅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다. 부처님은 이제 서쪽으로 건너 오셔서 자리를 잡고 있는 확실한 조짐이 감지되니 “부처가 서쪽으로 온 까닭”이 분명 있었음도 확인된다. 아직은 100 년도 안된 미국불교의 역사를 서양 중심으로 살펴보자.

17 세기 마태오리치와 그 외 예수회 선교사들이 서양인으로서 불교를 접해 서양에 ‘Buddhism’ 이라 알려졌고 그 후 18 세기 이후에 서양의 지성인이나 철학자들이 불교에 깊이 매료되기도 했었다. 미국에서 ‘Buddhism’이라는 단어가 매스컴에 크게 떠오른 것은 1893 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에 불교 대표가 참석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끌 것에서 시작된다.

70 여 년이 흐른 뒤 1960 년 대 부터 구미의 대학에 종교학과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경전 중심의 불교연구가 시작되었고 몇몇 문인들에 의해 대중화되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 조동종의 스즈키 순류가 샌프란시스코에 선(禪) 센터를 세우면서 30~40 여 년간 선종이 한 시대를 풍미해 왔고 얼마 후 거기에 티베트 불교가 가세를 했고 또 몇 년 전부터 위빠사나가 명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선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보는 이유는 선방 대신 티베트 불교와 위빠사나 센터가 속속들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때문인지 1970~80 년대 만 해도 일본 선풍 일색이었던 캘리포니아 만 해도 지금은 다양한 불교가 들어와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몇몇 일본계 선방은 유지 관리가 힘들만큼 출입하는 사람이 줄었다.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한 예를 들자면 초기 미국의 선을 주도했던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의 경우, 간신히 꾸려 나가는 형편이며 그 옆에 우후죽순처럼 나란히 있었던 선방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그 자리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섰다. 선이 한동안 이곳사람들을 열광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티베트 불교가 불교의 선두주자로 장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백인 불자 가운데 40% 이상이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는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명상 수행으로는 위빠사나의 열기가 주도하고 있는데 마하시와 고엔카의 백인 제자들이 속속들이 명상 센터를 지부 형식으로 문을 열어 수요를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턱낯한 스님의 ‘mindfulness’ 명상도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부처님의 기본 수행법으로 돌아가자는 일종의 작은 움직임에 의해 위빠사나 명상센터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수련장의 숫자도 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 문을 여는 명상센터를 보자면 현재 주류를 타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열기가 식고나면 더욱 더 남방불교 수행이 큰 유행을 일으키며 다음 타자로 떠오를 것 같은 조짐이 자주 보인다.

소수민족 이민 불교를 지칭하는 이삿집 불교를 제외한 가장 미국적인 아메리칸 부디즘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미국불교만의 특색이 있다.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자리는 있는가. 한국불교는 그나마 승산스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이것을 한국불교라 말하기엔 곤란한 점이 많다. 미국불교가 종파를 가르치지 않는 불교라지만 승산 스님의 제자들은 제각기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첨가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있다. 이것을 한국불교라 말 할 수는 없다. 미국 땅에서 얼굴도 존재도 없는 단혀 있는 우리 불교도 확인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서양의 문물을 들여다 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어찌면 먼 훗날 어느 시점에 우리가 미국 불교를 수입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라는 위기감도 든다.

- 김나미 -

웰빙.웰다잉의 비결 모두 갈무리돼 있어

보현보살의 십대행원: **중생 위한 으뜸 行願, 최상의 수행, “수지 독송하고 설하면 극락왕생”**

‘목숨을 마치는 찰나에 육신은 다 무너져 흩어지고 친척과 권속들은 다 떠나게 되며 떨치던 권세도 잃게 되어, 벼슬이나 궁전, 탈 것들, 그리고 보배들은 하나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이 원왕(願王)만은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앞길을 인도하므로 찰나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리라.’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의 십대행원(十大行願)이야말로 살아서는 ‘어디서든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듯 거리낌이 없게 되고’ 죽어서는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는’ 청경이라 밝히고 있다. 모든 서원 가운데 으뜸인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수지 독송하거나 널리 설하는 사람은 일념 중에 행원을 모두 성취하고, 얻는 복덕이 한량없으며, 모두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살아서의 웰빙과 죽어서의 웰다잉의 비결이 바로 이 열 가지 행원에 모두 갈무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시방삼세 부처님을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예경하되,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예경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예경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둘째는 여래를 찬탄하는 것이다. 여래의 한량없는 공덕을 수승한 지견으로 찬탄하며 미래세가 다하도록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셋째는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다.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범공양이 가장 으뜸이 된다.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접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이다.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다. 과거 지은 바 모든 악업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것이니, 일체를 모두 참회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모든 선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며, 일체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서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일체 부처님과 선지식에게 두루 권청하되 ‘열반에 들지 마시고 한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하고 원하는 것이다.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발심 출가하여 성도하시고 설법하셨으며 열반에 드셨다. 이와 같은 자취를 생각마다 따라 배우는 것이다.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다. 시방세계 중생들을 수순하여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하고 부처님과 같이 받든다는 원이다.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어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열째는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이상 아홉 행원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는 원이다. 보현보살은 실천행의 상징으로서 여의(如意)를 쥐고 있다. 여의란 등 굽는 도구를 말한다. 이른바 중생들의 가려운 곳,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다. 십대행원은 결국 중생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으로 최상의 수행을 삼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 제자 이야기: 사리뿔타와 목갈라나

“그들은 가장 뛰어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마가다국 빔비사라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자가하에 간 부처님은 그곳에서 최초의 사찰 죽림정사를 기증받았다. 승단(僧團)이 바라나시에서 출범했다면, 수행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사원은 라자가하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라자가하는 더 중요한 인연으로 부처님에게 다가왔다. 라자가하 외곽 작은 마을의 브라만 출신인, 상수(上手)제자 사리뿔타와 목갈라나를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라자가하에 도착한 부처님은 빔비사라왕이 기증한 죽림정사에서 두 달 정도 머물렀다. 그 때 산자야라는 행각사문(行脚沙門)이 250 여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라자가하에 살고 있었다. 사리뿔타와 목갈라나는 산자야와 함께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었다. 둘은 이미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먼저 불사(不死)의 경지에 도달하는 자는 다른 한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어느 날 앗사지 비구가 아침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 라자가하로 걸식하러 갔다. 그는 나아가고 물러서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굽히고 펴는 것이 의젓했고, 눈은 땅을 향하여 훌륭한 몸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사리뿔타가 라자가하에서 걸식하는 앗사지 비구를 보았다. 앗사지 비구는 나아가고 물러서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굽히고 펴는 것이 의젓하였고, 눈은 땅을 향하고 있었다. 이를 본 사리뿔타가 생각했다.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아라한의 도(道)를 갖춘 자가 있다면, 저 비구야말로 그들 중 한 분이다. 저 비구에게 물어 봐야겠다. 그는 누구에게 출가했으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앗사지 비구는 라자가하에서 걸식을 마친 뒤 음식을 가지고 돌아갔다. 사리뿔타는 앗사지 비구를 따라갔다. 이윽고 둘은 만났다. 사리뿔타는 앗사지 비구에게 안부를 물었고, 몇 마디를 나눈 뒤에 한쪽에 서서 물었다.

“벗이여, 당신의 감관은 매우 청정하며 피부 빛은 아주 흰니다. 벗이여, 당신은 누구에게 출가하였으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벗이여, 사키아족의 아들로 출가한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처님입니다. 나는 부처님에게 출가하였으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리뿔타가 다시 물었다. “그대의 스승께서는 무엇을 설하십니까?” “벗이여, 저는 어리고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법과 율법에 대해서는 배움이 짧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없고, 다만 간략한 의미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벗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을 마친 사리풋타는 계송을 읊었다. “많은 적든 말하십시오./ 오직 그 의미만을 제게 말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의미일 뿐/ 많은 문구가 무슨 소용이리오.” 앗사지 비구는 사리풋타에게 ‘연기법송(緣起法頌)’ 혹은 ‘법신계(法身偈)’로 알려진 법문을 설했다. “모든 법은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니(諸法從緣生)/ 여래는 그 원인을 설하셨네(如來說是因)/ 모든 법의 소멸도 또한(是法從緣滅)/ 위대한 사문은 그와 같다고 설하셨네(是大沙門說).” 사리풋타는 이 법문을 듣고 먼지와 때를 멀리 여윈 법안을 얻었다. 곧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소멸한다고 깨달았다.”

사리풋타는 곧바로 목갈라나에게 갔다. 사리풋타는 저간의 정황을 목갈라나에게 설명했다. 듣고 난 목갈라나는 먼지와 때를 멀리 여윈 법안(法眼)을 얻었다.” 목갈라나가 사리풋타에게 말했다. “벗이여, 부처님 곁으로 갑시다. 부처님만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벗이여 250 명의 행각 사문들이 우리를 의지하며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정을 알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시다.” 행각사문에게 간 두 사람은 “벗들이여, 우리는 부처님 곁으로 갑니다. 부처님만이 우리의 스승입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250 명의 사문들은 “저희들은 그대들에게 의지하며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저 위대한 사문에게 가 청정한 수행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리풋타와 목갈라나는 다시 산자야를 찾아가 말했다. “저희들은 부처님 곁으로 갑니다. 부처님만이 저희들의 스승입니다.” “안 된다. 가지 마라. 우리 셋이 함께 이 무리를 보살피도록 하자.” 그러나 사리풋타와 목갈라나는 250 명의 행각사문들을 데리고 죽림정사로 떠나갔다. 산자야는 그곳에서 뜨거운 피를 토했다.

부처님은 사리풋타와 목갈라나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비구들아, 저기에 오고 있는 두 명은 콜리타(목갈라나의 속명)와 우파딧사(사리풋타의 속명)이다. 그들은 가장 뛰어나고 현명한 나의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계신 죽림정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출가해 구족계를 받았다.

부처님 예언대로 사리풋타와 목갈라나는 후일 부처님을 훌륭하게 보필하고, 교단을 위해 큰일을 했다. 데바닷타의 반란으로 교단이 분열될 위기에 처하자 두 사람은 지혜롭게 내분을 마무리했다. 특히 부처님 입멸 후 200~300 년 뒤에 등장하는 상좌부(테라바다)와 대중부(마하야나)에 두 사람은 큰 영향을 주었다. 좀더 금욕적이고 수도자적인 테라바다는 사리풋타를 불교의 제 2의 창건자로 간주한다. 사리풋타는 분석적인 정신의 소유자로, 다르마(가르침)를 기억하기 쉽게 표현할 줄 알았다. 반면 좀더 대중적인 마하야나에게 사리풋타의 경건성은 너무 메마르게 느껴졌다. 대중부는 대중적이고 중생들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하야나는 목갈라나를 그들의 스승으로 여겼다.

사리풋타와 목갈라나의 귀의 등으로 교단이 커지자 시기하는 무리들도 생겼다. “사문 고타마는 아들을 뺏어 간다. 사문 고타마는 우리들을 과부로 만든다. 사문 고타마는 가정을 파괴한다. 그는 이미 천 명의 결발외도들을 출가시켰고, 산자야가 이끌던 250 명의 행각사문들을 출가시켰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비구들을 볼 때마다 계송을 읊으며 비난했다. “저 위대한 사문이/ 마가다국의 기림바자(라자가하)에 왔네./ 이미 산자야의 제자들을 유혹했으니/ 이제 다시 어떤 자들을 유혹할까?”

불평을 들은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소식을 전했다. 부처님은 “비구들아, 그 소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7 일간 떠돌 것이다. 7 일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비구들아, 사람들이 계송을 읊으며 비난하거든 ‘위대한 영웅이신 여래께서는/ 오직 정법(正法)으로 인도하시니/ 법으로 인도된 지자(智者)를/ 어찌 비난하는가?’하고 답하라”고 가르쳤다. 과연 비난의 소리는 7 일이 지나자 사라졌다.

“불교 믿으면 장수한다”

100 세 이상 불자 최다

우리나라 100 세 이상 장수노인 가운데 불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21 일 발표한 ‘100 세 이상 고령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 년 11 월 1 일 기준으로 100 세 이상 장수노인은 961 명이며 이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55 명(57.2%)로 파악됐다.

종교를 가진 장수노인 가운데 불자는 194 명으로 가장 많은 24.4%를 차지했으며, 기독교가 143 명(18.0%), 천주교 100 명(12.6%) 순이었다. 통계청의 100 세 이상 장수노인 조사결과는 2000 년 934 명에 비해 27 명(2.8%)이 증가한 수치다.

법회소식 NEWS

- 양력 8월 8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양력 8월 첫째주 일요일인 8월 6일날 백중 (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립니다. 이날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불교의 5대 명절중 하나로,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효행의 날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정진하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져 고통 받는 어머니를 위해 덕이 수승한 스님들께 공양 올려 그 법력으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날로, 미혹에 사로잡혀 거꾸로 매달린 듯 고통 받으며 악도를 해매는 수많은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날입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우란분절을 기려 저희 불국사에서는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족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올립니다. 즉 부모의 공덕과 삼보의 공덕을 기리며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 위신력을 빌어 중생이 지은 악업의 무거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훈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중기도 동참비는 \$5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오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운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불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처님 제가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불명이 없으신 신도님들 중에서 불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불명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불교 기초교리를 이수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계를 받으실 신도님들은 사찰로 연락 주십시오.
- 9월둘째주 일요일인 9월 10일에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점심공양이 있습니다.

- 7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17 번 을미생 양순영, 359 번 신해생 이한길, 360 번 기유생 남정원, 361 번 무인생 이은누리, 362 번 갑신생 이든.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타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